

 해양수산부		<b>보도자료</b>		 
		배포 일시	2021. 6. 30.(수)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첨단해양 교통관리팀	담당 자	• 팀장 홍순배, 서기관 최은진, 주무관 김근영 • ☎ (044) 200-6141, 6239, 6034	
보도일시		2021년 7월 1일(목) <b>석간</b>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태풍와도 끄떡없다!

### - 태풍에 취약할 수 있는 해상무선통신망LTE-M 기지국 80개소 집중점검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안정적인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로 태풍이 내습하는 시기(7~9월)\*에 앞서 7월 1일(목)부터 23일(금)까지 해상무선통신망(LTE-M) 기지국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한다.

\* 과거 20년간 총 102개의 태풍 중 7~9월 기간에 89개(87.2%)가 집중

바다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에게 해상 교통상황과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올해 1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전체 해양사고의 약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해상 교통체계로, 실해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5년간 ‘한국형 e-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 떨어진 해상까지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263개소에 해상무선통신망(LTE-M) 기지국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섬이나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기지국은 태풍 내습으로 인한 강풍, 폭우 등에 취약할 수 있어, 해양수산부는 통신망 전문 업체(KT)와 합동으로 이번 시설점검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강풍, 폭우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기지국 80개소로, 해양수산부는 △안테나 등 기지국 장비의 설치상태, △각종 케이블 정리·포박상태, △수분 유입 방지를 위한 절연·방수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전문 업체의 비상연락망 및 대체 장비 확보 여부 등 긴급복구체계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하여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홍순배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지난 1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태풍 내습에도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취약 기지국을 철저히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도 꼼꼼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참고

## 태풍취약 점검 대상 기지국 및 설치 사례

### □ 권역센터별 태풍취약 점검 대상 기지국

구분	설치 개소	점검 개소	위치		기지국 설치 형태				
			도서	내륙	건물옥상	CP주	IP주	강관주	철탑
부산권역	47	15	3	12	6	4	-	2	3
인천권역	29	7	1	6	-	1	1	5	-
동해권역	26	6	-	6	1	-	-	-	5
목포권역	109	30	11	19	4	16	5	2	3
포항권역	18	6	1	5	1	-	-	-	5
대산권역	34	16	2	14	1	7	3	3	2
합계	263	80	18	62	13	28	9	12	18

### □ 기지국 설치 사례



건물옥상



CP주(콘크리트주)



IP주



강관주